

SERMON 1. Why creation?

■ 오늘의 본문말씀 : 창세기 1:1

『Genesis1:1』¹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창세기1:1』¹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Introduction 서론

Let me start by asking you a question.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verse in the Bible?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From Genesis 1, verse 1 to the Revelation 22 verse 21, out of the total of 31,173 verses, what is the most important one?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총 31,173 구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Some people might say it's John 3:16:

『John3:16』¹⁶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요한복음3:16』¹⁶ ¶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도 답이 될 수가 있겠지요.

But a recent event that took place made me think over and start to see Genesis Chapter 1 Verse 1 as the most important verse of our generation. 그러나 저는 최근의 한 사건을 보면서 창세기 1장 1절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As you are aware, Mr. Park Sung-jin, a candidate for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has resigned himself on Sep 15th.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월 15일 자진 사퇴하였는데요.

However, his comments on Creation theology revealed through the media and congressional hearing disappointed many Christian brothers. 그간 언론 보도와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모습 중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한 것이 박 후보자의 창조 신앙에 대한 발언이었습니다.

As his activities in Association of Creation Science became controversial, Mr. Park resigned himself from the board of the Association and remarked that, as a scientist, he "respects evolution theory as a theory based on scientific methodology." 박 후보자는 창조과학회 활동 논란이 일자 창조과학회 이사직을 사임한 후 "공학도로서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진화론도 당연히 존중한다."고 말했다고.

Also, when he was asked whether he believes that the age of the Earth is 6,000 years during the congressional hearing, Mr. Park answered that "he believes in faith, yet he does not agree" 또 국회청문회 중 "창조과학이 지구의 나이를 6,000년이라 말하는 것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신앙적으로 믿고 있다."고는 하였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지요.

Major news media including Hankyoreh, Hanguk-ilbo and JTBC have attacked Mr. Park by saying that we cannot have a man who believes that humans coexisted with dinosaurs as a Minister candidate. 물론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JTBC 등의 여러 언론에서 '어떻게 공룡과 인간이 함께 살았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을 장관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느냐'며 박 후보의 창조신앙을 거세게 공격하니까

However, even if we consider the fact that Mr. Park's response was not a carefully crafted answer, the remark was a disappointment to Bible believers. 엉겁결에 나온 해명성 발언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성경신자들에게는 정말 실망스러운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So, if you were given the opportunities like Mr. Park, where you can present your belief before the public, what would you say? 자, 그러면 만약 여러분에게 박 후보자와 같이 전국민을 상대로 창조신앙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말을 하시겠습니까?

Or, if in a private setting, your colleagues or friends, or non-Christian relatives ask you a question on Creationism, how will you answer them? 아니면 사적인 자리에서 친구나 직장 동료 또는 (명절에 만나게 될)

비그리스도인 친척들과 창조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의견을 피력하시겠습니까?

This is why I wanted to go through five questions with you today under the title of "Why Creation?" and receive wisdom from the Creator God. 그래서 오늘 "왜 창조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며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을 얻고자 합니다.

1.1 Definition of Science 과학의 정의

So here is the first question. 첫 번째 질문입니다.

How do you define science? 과학(science)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Many people equate Science to the truth. 많은 사람들이 "과학 = 진리" 곧 과학을 진리와 같은 의미로 여기고 있는데요.

However, to have Science, you must first establish a theory based on observation, followed by verification process through experiments and reproduction. 과학이라고 하려면 먼저 관찰에 의한 이론을 정립하고 나서 이에 따른 실험 및 재현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In other words, you only have Science when you all of the three factors: Observation, Test or Experiment and Reproducibility. 다시 말해서 첫째로 '관찰'(observation)이 되어야 하고, 둘째로 '실험'(test or experiment)해 볼 수 있어야 하며, 셋째로 '재현'(reproducibility)이 되어야 과학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However, evolutionism does not satisfy the standards of scientific methodology. 그런데 진화론은 이러한 과학적 방법론을 결코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It is not observed, it cannot be tested and it cannot be reproduced. 진화는 관찰이 되지도 않고 실험할 수도 없으며 재현되지도 않습니다.

In other words, it is not Science. 즉 과학이 아닙니다.

Some people might say, "Wait, what about all the fossils?" "잠깐만요, 그 많은 화석의 증거는 어떡하고요?"라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요.

In 1859, Darwin first introduced theory of evolution by publishing On the Origin of Species. 1859년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 진화론을 발표한 후

Since then, for over 150 years, more than 100 million fossil pieces comprised of 250 thousand different species have been discovered and are currently displayed in over thousands of museums across the world. 150 여 년 동안 1억 개 이상의 화석이 발견되어 (25만종의 다른 생물로) 전 세계 수천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지만

However, none of them is a valid evidence of the theory of evolution. 진화의 증거를 보여주는 화석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다.

So far we have not found a transitional (interim) fossil. 특히 진화도종의 전이(중간)형태의 생물화석이 발견된 적이 없었지요.

We do not have a connecting fossil between different species. 종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다.

In other words, we are missing a link. Missing link! 연결고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As a measure to address this problem, evolutionists came up with a new concept called punctuated equilibrium. 그러다보니 진화론자들이 고육지책으로 단속 평형이론(斷續平衡理論, punctuated equilibrium, punctualism)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In other words, their claim is such that process of evolution is comprised of two different stages: 즉 생물 종의 진화 양상은 두 가지로 이뤄지는데

One is the 'stasis' which shows no dynamic change, and the other is cladogenesis where species are divided dynamically in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첫째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는 '안정기'와 둘째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급속한 종분화가 이루어지는 '분화기', 이 둘로 나뉜다는 진화 이론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So all of you understand what 'puncture' means. What Punctuated equilibrium or Puncutalism, in short, suggests is that there is a puncture, or a hole, in the process of evolution. 여러분들은 펑크 또는 빵꾸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단속 평형이론(斷續平衡理論)은 영어로 punctuated equilibrium 또는

punctualism인데 이는 진화에 핑크/뽕꾸가 났다는 것입니다.

However, with common sense, we can see that the claims of evolutionists that a new type of species were created without any links, is borrowed from the Scripture which teaches us that God made [animals] after his kind.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중간 형태의 생물이 없이 다른 종이 출현한다고 하는 진화론자들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생물을 만드셨다'는 성경의 창조 기사를 인용한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Here is Genesis 1, verse 25. 창세기 1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Genesis1:25』²⁵ And God made the beast of the earth after his kind, and cattle after their kind, and every thing that creepeth upon the earth after his kind: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창세기1:25』²⁵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1.2 Age determination 연대 측정

Second question. 두 번째 질문입니다.

How old is the Earth?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The common answer is 4.6 billion years. However, the correct one is 6,000 years. 보통 46억년이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6,000년입니다.

Some people might say, "wait, we already found out that it is 4.6 billion years by chronological dating!" "잠깐만요, 연대측정법으로 46억년이라고 밝혀졌는데 무슨 말입니까?" 라는 분이 계시지도 모르겠습니다.

The constant time it takes for an isotope to decay and be reduced to half the value is called "half-life". 동위원소가 붕괴돼 그 양이 절반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반감기'라 부르는데요, 이것은 항상 일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For example, half-life of Uranium 238 is over 4.4 billion years. 일례로 우라늄 238(238U)의 반감기는 44억년을 넘습니다.

So using this information, we can measure the amount and ratio of radioactive isotopes inside rocks in order to calculate the time the rock was formed. This method is called 'chronological dating'. 그래서 암석 내에 들어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들의 양과 비율을 측정하면 그 암석이 형성된 시기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연대측정법입니다.

There are various ways for chronological dating. But to measure the age of the Earth, we usually use the ratio between Uranium and Lead.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기 위해 보통 우라늄과 납의 비율로 계산을 합니다.

However, there are three very unique assumptions that people are usually not aware of. 그런데 여기에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세 가지의 특별한 가정이 전제가 됩니다.

The first assumption is that the initial radioactive matter did not include any middle-stage or later-staged matter (daughter element). 첫 번째 가정은 처음에 방사성 물질은 중간 혹은 마지막의 붕괴물질(자원소)을 포함하지 않는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In other words, we are assuming that initially there was only the parent element, Uranium and none of the daughter element, Lead in this case. 즉 우라늄과 납의 경우, 암석의 처음에 모원소 우라늄만 있었고 (모원소 우라늄으로부터 유래될 수 있는) 자원소인 납은 하나도 없었다고 가정하는 것이죠.

For example, we had tested the age of a rock formed by volcanic explosion in Hawaii 168 years ago through chronological dating. 그러나 실제로 하와이에서 168년 전에 화산 폭발로 생긴 한 암석의 연대를 측정해 보니

The estimate was 2.96 billion years, which is 1,760 times older than its real age. 29억6천만 년으로 추산 되어 무려 1,760만 배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As this case shows, the assumption that the initial rocks included only the parent element and none of the daughter element does not have basis. 이 결과에서 보듯 암석에는 처음에 모원소만 있었고 자원소가 하나도 없었다는 가정은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No one except for God knows what the initial rocks were made of. 암석의 처음 상태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The reason why evolutionists use this unscientific assumption is to use the time as their magic wand to justify. 그런데도 진화론자들이 이러한 비과학적인 가정을 하는 이유는 진화론의 요술방망이인 긴 시간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The longer time they propose, the more plausible their theory becomes. 왜냐하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However, no matter how big a number you multiply with zero, you still get a zero. 그러나 영(zero)에다 무한대를 곱한다 하여도 그 결과는 역시 영(zero)인 것입니다.

Second assumption is that radioactive isotope decay occurred within a closed system where nothing can be added or removed. 두 번째 가정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가 아무것도 뺄 수도 더할 수도 없는 닫힌 계(closed system)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During Noah's Flood, dynamic movement of the crust of Earth probably added and removed a great amount of elements. 대홍수 시 격렬한 지각운동 등으로 인해 유출과 유입이 될 수 있었을 텐데요.

However, even without the Great Flood, the claim that there was no change to the system for the entire history requires a great faith and should be considered as a religion itself. 노아의 홍수는 차지하고서라도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긴 시간동안 이러한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믿음의 영역 곧 종교 그 자체인 것입니다.

The third assumption is that the decay rate for radioactive isotopes has always been constant. 세 번째 가정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율은 전 시대를 걸쳐서 항상 일정했다는 것인데요.

Recent researches claim that the decay rate may be affected depending on various conditions. 최근의 논문들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가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If we consider the dynamic change the Great Flood brought, it is plausible that the decay rate for radioactive isotopes changed significantly. 특히 대홍수로 인한 격변을 고려하면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율은 시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In summary, chronological dating based on three unscientific assumptions is not a scientific methodology but a fiction behind the curtain of science. 따라서 이와 같이 비과학적인 세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한 연대측정법은 결코 과학적인 방법론이 아니라 과학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판타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Let us go to 1 Timothy Chapter 6, verse 20. 디모데전서 6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1 Timothy 6:20』²⁰ O Timothy, keep that which is committed to thy trust, avoiding profane [and] vain babblings, and oppositions of science falsely so called:

『디모데전서 6:20』²⁰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네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1.3 Scientific Irony 과학적 아이러니

Third question. 세 번째 질문입니다.

When explaining a natural phenomenon physically, sometimes we refer to a 'law' and sometimes to a 'theory'. What are the differences? 자연현상을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때 어떤 경우는 법칙(law)이라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론(theory)이라고 하는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s you are aware, we talk about the law of conservation of energy, not theory of conservation of energy.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너지보존의 법칙을 에너지보존의 이론이라 하지 않지요.

We have Einstein's famous general theory of relativity. But we do not call it general law of relativity. 또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을 일반상대성 법칙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So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a law and a theory? 법칙과 이론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We consider 'laws' to be the natural phenomenon which we believe that we figured out perfectly both mathematically and physically through deduction and experiments. 자연현상에 대해 (추리하고 실험해서) 알아낸 사실 중 적어도 수학적, 물리학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법칙'이라고 합니다.

For example, we have Newton's law of motions. 예를 들어 뉴턴의 운동법칙(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이 있습니다.

Also we have Law of thermodynamics which includes the First law for the conservation of energy and

the Second law that deals with increasing entropy. 또 열역학 법칙이 있는데요,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열역학 제1법칙과 무질서도(entropy)가 증가하는 열역학 제2법칙이 있습니다.

Laws are basic principles that are applied universally. 법칙은 범우주적으로 작용하는 자연의 기본 원리입니다.

This means that the same laws will be applied even in the other side of the Universe. 우주 반대편에서도 이 법칙들은 동일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However, theory is a structure based on mathematical methodology to explain a natural phenomenon based on certain hypothesis. 반면에, '이론'은 '어떠한 가정을 두고'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 만들어낸 구조입니다.

In that case, can a theory that contradicts a law that has already been perfectly established scientifically be still considered as science? 그렇다면 이미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된 법칙과 모순되는 이론도 과학이라 할 수 있나요?

Absolutely not.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So what's the case for the Big Bang Theory? 그런데 빅뱅 이론은 어떻습니까?

Big Bang Theory claims that the Universe was created 16 to 20 billion years ago as a matter that is smaller than a ping pong ball exploded. 지금부터 160억 내지 200억 년 전 탁구공보다 작은 것으로부터 폭발하면서 우주가 생겼다고 하는 이 빅뱅 이론은

This goes against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that says that the entropy increases. 엔트로피(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열역학 제2법칙과 모순이 됩니다.

Therefore, Big Bang Theory cannot be considered as real science. 따라서 빅뱅 이론은 과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Some people might say, "Wait. We have evidences that Big Bang created Science" "잠깐만요, 빅뱅으로 인해 우주가 탄생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라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We may call it 'big bang', but we have never observed the initial, great explosion in the early stage of the Universe. 빅뱅이라고 하지만 우주가 초기에 대폭발을 하는 것이 직접 관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Obviously, we cannot observe that. 물론 관찰할 수도 없지요.

What we did observe was that we observed Universe expanding in 1920s and came up with Big Bang Theory in 1931 in order to explain this. 단지 1920년경부터 우주가 조금씩 팽창하는 것(적색편이, redshifts)이 관측이 되었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빅뱅 이론이 1931년에 생겨났을 뿐인데요.

However, the expansion of the Universe is not a direct evidence of Big Bang. 우주의 팽창이 빅뱅의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Let us put down all the presuppositions and approach this logically. 자 모든 선입견과 사전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When there is an explosion, does that promote order or destroy it? 폭발을 하면 질서가 있게 됩니까, 없게 됩니까?

It destroys the order, and instead, creates chaos. 네, 질서가 깨집니다. 대신 무질서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Does everyone agree? 다 동의하시죠?

Then is it possible for orderly starts to be formed out of chaotic gas and orderly and delicate life forms are created out of chaotic primordial soup? 그런데 무질서한 가스에서 질서정연한 별들이 생기고, 무질서한 원시스프에서 질서 있는 정교한 생명체가 생기는 것이 가능할 수 있나요?

We are directly experiencing the real truth where everything, including the buildings you live in, the cars you drive and clothes you wear all tear and wear and approach the chaos.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나 타고 다니는 자동차, 입고 있는 의복 등 어떤 물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며 무질서해 지는 것이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진실이지 않습니까?

Therefore, Big Bang Theory which contradicts the 2nd Law of Thermodynamics is not a real science. 따라서 열역학 제2법칙을 거스르는 빅뱅 이론은 결코 과학이 아닙니다.

Let us read Psalms Chapter 102 from verse 25 to 27.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Psalms102:25-27』 ²⁵ Of old hast thou laid the foundation of the earth: and the heavens [are] the work of thy

hands. ²⁶ They shall perish, but thou shalt endure: yea, all of them shall wax old like a garment; as a vesture shalt thou change them, and they shall be changed: ²⁷ But thou [art] the same, and thy years shall have no end.

『시편102:25-27』 ²⁵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²⁶ 그것들은 (땅, 하늘, 만물들은) 사라지려니와 오직 주께서는 지속하시겠고 참으로 그것들은 (땅, 하늘, 만물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바꾸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²⁷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헛수는 끝이 없으리이다.

These are commonly quoted Scripture that relates to the 2nd Law of Thermodynamics.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해 언급된 많은 성경구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1.4 Dinosaurs 공룡

Fourth question. 네 번째 질문입니다.

When did dinosaurs go extinct? 공룡은 언제 멸종되었습니까?

Dinosaurs are commonly known to have existed for almost 200 million years from Jurassic to Cretaceous period and gone extinct around 66 million years ago. 공룡은 주로 중생대 쥐라기와 백악기에서 2억년 가까이 살다가 약 6,600만 년 전 멸종되었다고 알려져 있지요.

The truth is, however, the that the dinosaurs did not go extinct completely and have coexisted with humans. 그러나 공룡은 완전히 멸종되지 않고 인간과 함께 살았습니다.

Some might say, "wait, if dinosaurs have lived with us, shouldn't we have more evidences of them?" "잠깐만요, 공룡이 인간과 함께 살았다면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And yes. That is correct. And we have plenty.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공룡이 인간과 함께 살아온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One of the very common sense evidences. In Eastern culture we have twelve animals that represent cyclical years. 우선 상식적인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띠가 있으시죠? 허리띠 말고, 나이에 따른, 동물로 표현되는 띠가 다 있지요.

The twelve animals include mouse, cow,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sheep, monkey, rooster, dog and pig, and are believed to have been originated in China during Ha Dynasty.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곧 용을 포함한 12 가지 동물로 표현되는 십이지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십이지간의 기원은 중국 하왕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We don't know for sure who first came up with this system. 그런데 누가 동물들을 십이지에 최초로 결합시켰는지 알 수 없지만

However, we must note the fact that these twelve animals were selected because the contemporary Chinese could see these animals.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중국 사람이 당대에 이 12가지 동물들을 직접 볼 수 있었기에 십이지간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In other word, if a dragon, an animal considered to be imaginary these days, did not exist back then, it would not have been included in the twelve. 즉 오늘날 '상상의 동물'이라 여겨지는 용(dragon)이 당대에 살지 않았더라면 십이지간에 포함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There are a lot of records about dragons in China. 중국에 용에 대한 기록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Especially, Compendium of Materia Medica by Li Shizhen, a document registered in UNESCO's Memory for the World register, narrates the method to create medicine using the dragon. 그 중 유네스코에 세계 기록 유산으로 기재된 이시진의 <본초 강목>에 용으로 약재를 만드는 법이 세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Marco Polo, famous for his Book of the Marvels of the World, also had records on dragons. 또 우리에게 <동방견문록>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마르코 폴로도 용에 대한 기록을 여러 곳에 남겼습니다.

Marco Polo noted that during the course of his 17-year stay in China, the Emperor trained dragons to carry his wagon. 특히 마르코 폴로는 중국에서 17년을 사는 동안 황제가 자신의 마차를 끌도록 용을 키우고

In 1611 a dragon trainer for the palace was appointed. 1611년에는 황실 용 사육사를 선임했으며,

He also noted that the chinese used dragon blood for medicine and highly valued the eggs.

중국 사람들은 용을 키워서 그 피를 약제로 쓰고 그 알은 굉장히 귀하게 여겨진다고 기록하였습니다.

Bible also mentions dragons in various places. For time being we will briefly go through Job Chapter 40 today. 성경에도 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시간관계상 오늘은 욥기 40장만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Here's Job 40, verse 15 to 18. 욥기 40장 15절부터 1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Job40:15-18』¹⁵ Behold now behemoth, which I made with thee; he eateth grass as an ox. ¹⁶ Lo now, his strength [is] in his loins, and his force [is] in the navel of his belly. ¹⁷ He moveth his tail like a cedar: the sinews of his stones are wrapped together. ¹⁸ His bones [are as] strong pieces of brass; his bones [are] like bars of iron.

『욥기40:15-18』¹⁵ ¶ 이제 내가 너를 만들 때에 함께 만든 베헤못을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느니라. ¹⁶ 이제 보라, 그의 기력은 그의 허리에 있고 그의 힘은 그의 배의 배꼽에 있느니라. ¹⁷ 그가 자기 꼬리를 백향목같이 움직이며 그의 고환의 힘줄은 서로 얽혀 있고 ¹⁸ 그의 뼈들은 강한 놋 덩이 같으며 그의 뼈들은 쇠막대기 같으니라.

Many people believe Behemoth refers to hippo or elephant due to the influence of revised Bible translation. 많은 사람들이 이 베헤못을 개역성경의 영향을 받아 하마나 코끼리라고 생각하지만,

However, the passages that say [behemoth has] tail like a cedar betrays the fact that this cannot be hippo or elephant that has thin tails. (17절) 꼬리가 백향목 같다는 표현으로 보아 꼬리가 밧줄처럼 아주 얇은 하마나 코끼리는 결코 베헤못이 될 수가 없습니다.

Cedars are trees that are on the flag of Lebanon and are known for its grand size.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레바논의 국기에도 그려질 정도로 웅장함을 자랑하는 커다란 나무입니다.

This is why many Christians believe that the mentioned animal actually refers to a huge Herbivore dinosaur like Apatosaurus or Brachiosaurus.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동물이 공룡 특히 아파토사우르스(Apatosaurus)나 브라키오사우르스(Brachiosaurus) 같은 거대한 초식 공룡을 지칭한다고 생각합니다.

We will continue down Job 40 from 19 to 24. 계속해서 욥기 40장 19절부터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Job40:19-24』¹⁹ He [is] the chief of the ways of God: he that made him can make his sword to approach [unto him]. ²⁰ Surely the mountains bring him forth food, where all the beasts of the field play. ²¹ He lieth under the shady trees, in the covert of the reed, and fens. ²² The shady trees cover him [with] their shadow; the willows of the brook compass him about. ²³ Behold, he drinketh up a river, [and] hasteth not: he trusteth that he can draw up Jordan into his mouth. ²⁴ He taketh it with his eyes: [his] nose pierceth through snares.

『욥기40:19-24』¹⁹ 그는 [하나님]의 길들 중에서 으뜸이거니와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을 그에게 가까이 댈 수 있느니라. ²⁰ 들의 모든 짐승이 노는 산들은 확실히 그를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²¹ 그가 그늘진 나무 아래와 갈대밭의 숨는 곳과 늪 속에 누워 있나니 ²² 그늘진 나무들은 자기들의 그늘로 그를 덮고 시내의 버드나무들도 그를 감싸는도다. ²³ 보라, 그가 강을 마시되 서두르지 아니하나니 그는 자기가 요르단을 자기 입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고 믿느니라. ²⁴ 그가 자기 눈으로 그것을 취하며 그의 코는 올가미들을 꿰뚫는도다.

In verse 19, the Scripture tells us that the animal is 'chief of the ways of God'. That cannot be a hippo or elephant. (19절) 하나님의 길들 중에서 으뜸이라고 하였는데 하마나 코끼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 으뜸인 짐승일 수가 없습니다.

It must refer to a dinosaur. 바로 공룡이 모든 동물 중 가장 으뜸이지요.

In verse 21, the habitat of the creature is specified to be fen, or a swamp. (21절) 공룡의 처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늪 속에 누워있다고 하였습니다.

Even recently we have claims that a dinosaur was observed. Many of these claims come from places near swamps. 최근 들어서도 공룡이 목격이 되고 있는데요, 대개 늪 지역에서의 목격담이 많습니다.

For example, Eugene Thomas, the missionary who served in Congo for 43 years, said that he heard Pygmies claim that they had killed a dinosaur in 1959. 예를 들어 43년간 콩고에서 선교하였던 유진 토마스(Eugene Thomas) 선교사 증언에 의하면 콩고에서 공룡을 죽였다는 피그미들의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1959년).

There is a huge swamp area called Likouala in Congo that spans over 55,000 squared miles which is 1.5 times larger than this country. 콩고에는 리코우알라(Likouala)라는 커다란 늪 지역이 있는데 그 크기가 무려 55,000 평방마일로서 우리나라 면적의 1.5배 가까이 되는 크기입니다.

80% of this huge swamp is in its primal form, untouched by human hands. 물론 그 지역의 80%는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원시 상태입니다.

I personally believe that there are dinosaurs living in Likouala area even until this day. 저는 지금도 이

리코우알라 지역에 적지 않은 공룡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Recent scientific journals claim that soft tissue, red blood cell, bone cell, protein and radioactive Carbon-14 have been found in dinosaur bones.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과학 논문들에 의하면 공룡 뼈에서 연부조직, 적혈구, 뼈세포, 단백질, 심지어 방사성탄소(C-14) 등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We now know that the theory that dinosaurs all went extinct 70 million years ago is false as we find these organic pieces from the dinosaurs. 적어도 7천만 년 이전에 죽었다고 하는 공룡에서 이러한 생생한 조직들이 21세기에 발견이 되고 있는 사실로써 우리들은 진화론적 시간 틀에서 주장되는 장구한 시간이 허구임을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Also, ironically, close examination of dinosaurs provides us with another strong evidence that the age of the Earth is 6,000 years. 그래서 공룡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보면 볼수록 역설적으로 공룡이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고 하는 성경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1.5 Lightyear 광년

Last question.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How old do you think is the Universe? 우주의 나이는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Just like the Earth, the Universe is 6,000 years old. 우주의 나이도 지구의 나이와 같이 6,000년입니다.

Some might say, "Wait a minute. How can we then see the stars that are billions of light years apart from us? That shows us that even if the age of Earth may be 6,000 years, the Universe must be at least billions of years old" "잠깐만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수십억 광년 밖의 별을 볼 수가 있나요?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라고 해도 우주의 나이는 적어도 수십억 년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라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So let me explain how starlight so far from us got to us in 6,000 years. 자 그럼 우주 멀리서 오는 별빛이 어떻게 6,000년 동안 이루어질 수 있는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four assumptions that you must understand. 먼저 아셔야 할 네 가지 전제사항이 있습니다.

Firstly, a hundred light year is a distance that cannot be precisely measured. 첫째로, 100광년이상은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This is because the distance between stars are measured using Trigonometry. 왜냐하면 별간의 거리 측정은 삼각함수를 이용하는데요,

We use the revolution orbit of the Earth as one side of the triangle. 지구의 공전 궤도를 삼각형의 한 변으로 놓고 별과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However, relatively speaking, the distance of the Earth's orbit is really really short compared to the distance from the object star. 지구 공전궤도의 지름이 측정하려는 별과의 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매우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Therefore, millions of lightyears is more imaginary number than actual mathematical fact. 수백만 광년 운운하는 것은 상상의 산물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Secondly, we do not clearly understand the light. 둘째로, 빛의 정체에 대해 아직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We discuss terms like waves, particles, photons and quantum but we do not clearly understand the mechanism of light. 우리가 파동, 입자, 광자, 양자 등의 용어에는 친숙하지만 솔직히 빛의 정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We also do not know for sure whether light has travelled at the same speed throughout the time and space. 아울러 빛이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항상 같은 속도로 움직여 왔는지도 분명히 모릅니다.

Thirdly, we assume that Creation was complete when God created the first time. 셋째로, 창조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바로 끝이 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Lastly, just in case, light-year is a distance, not time. 넷째로,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지만) 광년은 거리이지 시간이 아닙니다.

Now let us go to the Bible. Here's Isaiah 40 verse 22. 자 이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2 절입니다.

『Isaiah40:22』²² [It is] he that sitteth upon the circle of the earth, and the inhabitants thereof [are] as grasshoppers; that stretcheth out the heavens as a curtain, and spreadeth them out as a tent to dwell in:

『이사야40:22』²² 땅의 원 위에 앉으신 이가 바로 그분이시니 땅에 거하는 자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분께서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며 그것들을 거주할 장막같이 펴시고

As a side-note, the Book of Isaiah, written in 700 BC talks about the 'circle of the earth'. (기원전 700 년경에 쓰인 이사야서에서 땅의 원 (the circle of the earth) 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All of Isaiah's contemporaries believed Earth to be flat but the Bible has been teaching us that the Earth is round for all those times. 당시 전세계 사람들은 지구가 편평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성경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이처럼 오래 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In the later verse, the scripture says that [God] stretcheth out the heavens as a curtain, and spreadeth them out as a tent.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며 장막(tent) 같이 펴신다고 하였습니다.

Holy Bible tells us more than 10 times that [God] stretcheth out the heavens. 그렇습니다. 성경은 10번 이상이나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펼치신다”(stretch out)고 말씀합니다.(욥9:8; 시104:2; 사40:22; 42:5; 44:24; 45:12; 48:13; 51:13; 렘10:12; 51:15; 숙12:1)

So here is when we shift our paradigm.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Instead of asking how did star light get to Earth, we have to ask, "how did stars go that far from here?" 빛이 어떻게 별에서 지구로 도달했는가가 아니라 '별이 어떻게 여기서 거기로 갔는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God created the Earth first. And then the stars were spread out from here.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별들은 여기로부터 펼쳐나갔습니다.

As stars are being expanded out, they left some remains which are the 'redshifts' from the Big Bang Theory. 별들이 자기 자리로 펼쳐져 나갈 때 빛의 잔재를 남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빅뱅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적색편이(redshifts)인 것입니다.

We can also view this from Einstein's Theory of Relativity. 우리는 이것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라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Time changes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the measurements including gravity and speed. 시간은 중력이나 속도 등의 관측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If you saw the movie entitled Interstellar then you may understand this easier.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신 분들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It is a known fact that time flows faster in high elevations like the top of Everest mountain, GPS satellite and space station.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이나 GPS 위성, 우주정거장 같이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지상에서보다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This phenomenon is known as 'gravitational time dilation'. 이것을 '중력 시간 지연 효과'(gravitational time dilation)라 하지요.

God created stars on the 4th day. 하나님께서 별을 창조하신 것은 넷째 날입니다.

If the time on Earth flew much slower on the fourth day compared to time from Universe of Galaxy, then it probably provided sufficient time for light to reach Universe from outer space. 그 창조 4일째에 지구의 시계가 우주나 은하의 시계에 비해 아주 느리게 흐르고 있었다면 우주에서 빛이 지구로 오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Then by the sixth day of the Creation, when Adam woke up in the morning, the light could have been reaching the Earth and Adam could have seen it. 그래서 창조 6일째 아담이 눈을 떴을 때는 빛이 이미 지구에 다다르고 있었고 아담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So the starlights that we observe today are the light coming from the stars God created on the fourth day. We must recognize this fact and base our paradigm on the accounts of the Bible which precisely records the history of the Universe.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별빛은 창조 4일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별에서 오는 빛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사고의 근본을 우주의 역사를 정확히 기록한 성경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Here are the Proverbs 3, verse 5 and 6. 잠언 3장 5,6절을 보시겠습니다.

『Proverbs3:5-6』⁵ Trust in the LORD with all thine heart; and lean not unto thine own understanding. ⁶ In all thy ways acknowledge him, and he shall direct thy paths.

『잠언3:5-6』⁵ ¶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⁶ 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네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Conclusion 결론

Now I will summarize today's message.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First, Darwin's theory of evolution is not a science. God created creatures 'after its kind'. 첫째, 다윈의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Second, chronological dating is a fiction behind the curtain of science. 둘째, 연대측정법은 과학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판타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Third, Big Bang theory which contradicts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is not a real science. 셋째, 열역학 제2법칙을 거스르는 빅뱅 이론은 결코 과학이 아닙니다.

Fourth, Study on dinosaurs support the Biblical claim that the age of the Earth is 6,000 years. 넷째, 공룡은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고 하는 성경적 주장을 뒷받침해줍니다.

Fifth, the age of the Universe, like the age of the Earth, is 6,000 years. 다섯째, 우주의 나이도 지구의 나이와 같이 6,000년입니다.

Therefore, we must always remember our God, our Creator.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I will finish by reading the Ecclesiastes chapter 12, verse 1 전도서 12장 1절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cclesiastes12:1』¹ Remember now thy Creator in the days of thy youth, while the evil days come not, nor the years draw nigh, when thou shalt say, I have no pleasure in them;

『전도서12:1』¹ 이제 네 젊은 시절에 네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